



미국 작가가 쓴 ‘해녀들의 섬’… 현지서 반향

소설가 리사 시의 장편소설
뉴욕타임스 등 베스트셀러
해외 10여개국 저작권 판매

“해녀의 삶 매료돼 쓴 책…
사라질 위기처한 여성들의
문화 전체에 관한 이야기”



미국 소설가 리사 시의 소설
‘해녀들의 섬’. 사진 왼쪽은 미
국판, 사진 오른쪽은 한국어판.



제주 해녀와 4·3을 소재로 한 미
(美)소설이 현지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발간된 리사
시(Lisa See·64) 작가의 장편소설
‘해녀들의 섬(The Island of Sea
Women)’이 화제의 소설로 떠오른
것. ‘해녀들의 섬’은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 등 미 유력 일간지 베스트셀
러에 오르고 해외 10여개 국에 저작
권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는 “생생하고 사려깊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필독서”라고 극

찬했고, AP통신은 “책에서 눈을 뗄
수 없다. 레이먼드 챈들러의 범죄소
설에 버금가는 반전 구성으로 독자를
매혹한다”고 평했다. 미국판에는 ‘물
소중이’를 입고 웃음 짓고 있는 두
해녀의 사진이 표지에 사용됐다.

소설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최근인 2008년까지 제주 구좌읍 하
도리의 해녀와 주변인들이 겪은 삶
의 이야기를 담았다.

프랑스 태생의 미국인 소설가 리사
시는 소설을 발간하기 10년 전부터
제주와 관련한 사료 조사에 나섰다.

하도와 귀덕마을의 해녀와 해녀 전문
가, 주민들을 잇달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제주 전통 것과 전통문화 이
수자들도 접촉했다. 2016년 5월에는
제주도를 방문, 원희룡 지사를 만나
이 소설 집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리사 시는 한국판 독자인사말에서
“10년 전 좀 우연히 제주해녀들을 다
룬 기사를 접했다. 해녀에 매료된 나
는 언젠가 그들에 대한 책을 쓰리라
다짐했다”며 “수백 년 동안 존재했
다가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
성들의 문화 전체에 관한 이야기”이라

고 작품을 소개했다.

4·3사건은 이 소설의 또다른 주
인공이다. 작가는 4·3 정부 진상보고
서를 참고했다.

그는 4·3에 대해 인사말에서
“50년 동안 제주사람들은 4·3사건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내
린 결론을 모아놓은 ‘제주4·3사건보
고서’를 공부했다. 이 보고서에는 힘
들고 잔인했던 그 시절에 일어난 여
러 사건들을 직접 겪은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다”며 “특히 북촌
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 군
인들이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애플런스 기사의 회상이 인상적
이었다. 그의 회상은 ‘해녀들의 섬’
에도 인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를 방문하고 싶다면 4·
3평화공원에 꼭 가보길 추천한다”며
“그곳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의 끔찍
한뿐만 아니라 평화의 용서를 찾는
법도 알려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도민 목소리 가감없이 전하는 가교 역할”

김성언 신임 정부부지사 밝혀
임명 강행에 반발 목소리도



지난 1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을 방문한 김성언
신임 제주도 정부부지사.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의회는 ‘부적격’ 판정을 무
시하고 임명이 강행돼 논란이 된 김성
언(61) 제주도 신임 정부부지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김 부지사는 원희룡 지사로
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찾았다.

김 부지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
다. 현재 의회와 도가 불협화음을 겪
고 있는데, 직접 발로 뛰며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적격 문제
로 인해 원희룡 지사가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부담이 된다면 자리에 연
연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경험 부족에 대해 도민
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볼 수 있어 행정의 변화에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
협 조합장과 감귤연합회 회장 경
험을 살려 1차 산업 강화에 역량을
쏟아부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제주도 정책
을 최대한 빨리 도민들이 알 수 있
도록 항상 언론에 문을 열어 놓겠다”
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
도의 회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
야 한다”며 “이제라도 인사폭거를
멈추고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을 다시 한 번 찾길 바
란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독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어르신 무료접종 22일 마감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인플루
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22일 마감하
다고 밝혔다.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국가인플
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달 22일까지,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는 내년 4월 30
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더불어 보건소에서는
제주도민 중 만 6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인플루엔자는 법정 제3군 감염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고열, 근육통
등 심한 전신증상을 나타내거나 폐
렴 등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유행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4
월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
장하고 있다. 무료접종대상 및 시
기와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서귀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문의 서귀포보건소 760-6085-6087.

이태윤기자 ly9456@ihalla.com

제주미래비전·지속가능발전 연계 정책 구축

김태석 의장 발의 조례 제정
“도민의 삶의 질 제고 기대”

제주도정의 제주 미래비전과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GDs)를
연계해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을 제
고하는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31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차원에서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동참하기 위해 UN 지속가능발전 17
개 목표에 대한 실천계획과 발전지
표를 수립해 정책과 공존이라는 제
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 실천과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
획과 연계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5
년마다 수립 추진하고, 도지사가 지
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 및 공표하며,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매년 평가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
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 제2공화
사업 추진 찬반 등 도민사회에 극단적
인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통해 제주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
전 정책체계를 연계함으로써 현재·
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위한 ‘제주
형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지난 1일 제주시 이도2동 나라키움 제주북합관사 내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개소
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인권위 제주출장소 개소 도내 인권문제 상담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지
난 1일 개소에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시 이도2동 나라키움 제주북
합관사에 자리를 잡은 제주출장소는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제주지역
인권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조사·관고를 담당하는 사
건 조사 인력 5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 참가한 원희룡 제
주도지사는 “제주에 인권을 전담하

는 국가기관 설치하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향해 나가는 중요한 기
회”라며 “제주에는 4·3이라는 큰 인
권 유린을 치유해 온 역사가 숨 쉬는
곳이자, 최근에는 이주민과 외국인들
로 인한 다양한 사회·인권문제가 제
기되는 곳이다. 제주출장소 개소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의 비밀
언덕이 되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는 지난 2015년 인권보
장 및 증진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8월에는 인권팀을 신설해 인권 보
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해 나가고 있다.

송은범기자

2019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기초 미생물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일 시 2019년 11월 6일(수) ~ 11월 8일(금) (09:00 ~ 18:00)

장 소 생물종다양성연구소 2층 회의실 및 미생물실험실

대 상 제주 도내 · 외 미생물, 발효 산학연 관계자 등

강사진 eMass 박지원 이사, 홍준기 대리

주요내용 · 기초 미생물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단계적 교육
· 미생물학 개론, 무균 배양 및 환경 모니터링, 기타 실험법 등

모집기간 공고일 ~ 2019년 11월 4일(월) 18:00까지

과정혜택 교육 수강생에 한해 ‘국내 벤치마킹’11월 중순 추진 예정

신청방법 교육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참석문의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생물자원연구팀 이종두 연구원

TEL: 064-720-2816 FAX: 064-720-2801 E-mail: jdlee1015@jejutp.or.kr

수강신청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고,
제주 미생물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JTP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Biodiversity Research Institute, Jeju Technopark

제 2형 당뇨병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써 DWP160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제 2상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임상시험 목적

본 임상연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단독요법으로써 DWP160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모집대상

**제 2형 당뇨병 환자로, 동시서 작성일 기준 만 20세
이상 80세 이하의 성인 남녀**
첫 방문 시 측정된 당화혈색소 수치가 7%~10%이며, 첫
방문일 기준 8주 이내에 당노치리제를 복용하지 않은 지원자

임상시험대상자 제공사항

▶ 참여기간 동안 임상시험 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의료진의
진찰 및 검사비
▶ 임상시험용의약품
▶ 소정의 교통비

예측 가능한 부작용

시험약DWP16001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무른 변, 설사, 소화
불량 등의 위장관계 증상과 배뇨곤란, 뇨의 지류 등의 비뇨기계
증상들이 있습니다.
※ 상기 부작용 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방법

▶ 총 5회 방문실시
- 선별검사 1회 포함, 기존에 약제 복용하던 대상자의 경우
총6회 방문
- 임상시험용의약품 14주 복용, 전체 시험 참여기간은 최대
16주 (약제 복용하던 대상자의 경우 24주)
- 병원방문 시, 활력징후 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시행
▶ 서면동의서 취득 후 선별검사를 거쳐 적합한 시험대상자로
선정된 후 1:1:1 무작위배정을 진행
[시험약1: DWP16001 0.1mg 또는 시험약2: DWP16001 0.3mg 또는
시험약3: DWP16001 0.5mg 또는 대조약: 위약(가짜약)]

참여기관

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중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28,
연건동 28-21) 내분비내과 박경수 교수 외 국내 39개 종합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포함)

문의처 1800-1252